

희망 나무

2013 vol. 01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한림후원회 소식지





Contents

- 03 | 한림후원회 회장 인사말
- 04 | 한림후원회 소개
- 05 | 지원환자 현황 및 치료비 지원절차
- 06 | 사진으로 보는 한림후원회
- 08 | 지원환자 사연
- 10 | 지원환자 감사편지
- 12 | 백의천사의 미소 : 지역사회기관 감사편지
- 13 |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 지원환자 사진
- 14 | 한림후원회 창간호 발간 축하 메시지
- 16 | 후원해 주신 분
- 18 | 한림후원회 가입신청서
- 19 |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시려면



[희망나무] 2013년 2월 창간호

발행일 2013년 2월

발행인 김이수

발행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T. 031-380-6078 / F. 031-380-4082

기획·편집 김은경, 이경애, 문지혜, 유혜미, 이창수, 엄정희

디자인 애드공감 T.02)2263-0809 www.adgg.co.kr

©희망나무/ 이 책에 실린 어떠한 내용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01

한림후원회

회장 인사말



김이수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안녕하십니까. 한림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러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림후원회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원들과 개인 후원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1999년 개원 시부터 후원을 시작하였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함께 뜻을 나누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비영리 단체 한림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한림후원회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환자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를 입원·외래치료 비용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약물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비용 또한 지원하여 환자분들이 최상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한림후원회가 매년 조금씩 성장하여 점차 많은 환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림후원회는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2 한림후원회 소개

1. 한림후원회 설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는 201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저소득 환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유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미션 및 활동 목적

한림후원회 미션

환자의 치료유지 및 치료연속성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보건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림후원회 활동목적

-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휴머니티 실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3. 주요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암,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의 입원·수술 및 외래 검사비용을 지원
- **약물치료비 지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용을 지원
- **간병비 지원**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 환자의 치료유지를 위해 간병비용을 지원
- **보장구 지원**
보청기, 호흡보조기구, 휠체어와 같은 의료 보장구, 복지용구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

기금 모금 사업

특별 기부금 모금 / 도서바자회 6월, 11월 연 2회 실시

4. 심벌마크



한림후원회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싱그러운 연두색의 작은 잎을 후원회의 심벌마크로 상징화했습니다. 한림후원회는 희망의 작은 잎이 미래의 큰 희망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지원환자 현황 및 치료비 지원절차

1. 연도별 지원환자 및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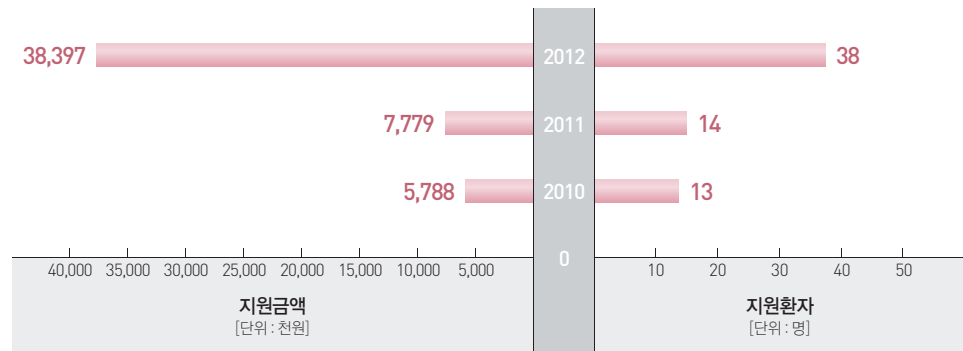
사회사업팀 후원금

• 총 지원금액 : **3,170,018,990원** • 총 지원환자 : **1,219명**



한림후원회 후원금

• 총 지원금액 : **51,965,164원** • 총 지원환자 : **65명**



2. 치료비 지원절차



※ 상담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시면, 사회사업팀으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사진으로 보는 한림후원회

Before

한림후원회 발족 이전

1999년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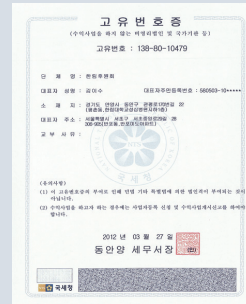


- 개인기부자 황종규님의 3,000,000원 첫기부
- 소화기내과 박상훈 교수, 전공의 협의회, 총무팀, 원무팀 직원의 기부로 총 1,990,606원 모금
- 본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 • 가족인 임승철님, 이태규님, 나선자님, 익명인의 기부로 총 4,100,000원 모금
- 외과의국에서 어린이 겨울 점퍼 기증
- 유방내분비외과 김이수 교수의 소년 가장 어린이 1:1 결연후원
- 교직원봉사단(나눔미), 내과 의국 졸업생의 기부로 5,000,000원 모금
- 김옥자님, 송영자님, 김태규님의 기부로 22,807,900원 조성
- 고객지원실로부터 사랑의 모금함 3,494,325원이 전달
- 익명 교직원의 첫 자녀 돌잔치 축의금 3,650,000원 기부

After

한림후원회 발족 이전

2010년 10월 6일



비영리단체 한림후원회로 발족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한림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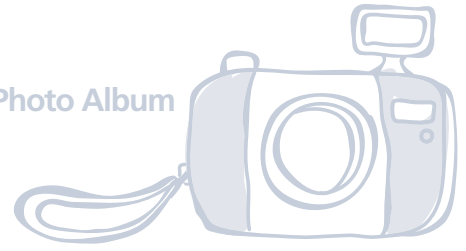
2010년 12월



한림후원회 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한림후원회 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7명의 운영 위원들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Hallym Photo Album



2010년 12월 23일 ~ 24일

**한림후원회의 특별한 한끼 나눔 「당신도 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개최**

교직원 대상으로 특별한 한끼 나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295명의 교직원이 동참하였고, 그 중 218명은 정기후원자로 등록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 2012년 6월 & 11월

**한림후원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개최**

본관 로비에서 5일간 내원객을 위한 도서바자회가 오픈북과 함께 개최되었으며, 오픈북에서 각각 6,930,000원, 6,380,000원, 4,46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한림후원회 로고 선정 이벤트**

한림후원회의 상징인 로고를 교직원들과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총 596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30표 차이로 현재의 로고가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행운권 추첨을 통해 10명의 교직원에게 피자과 콜라의 행운을 전달하였습니다.

2012년 4월

**한림후원회-신림종합사회복지관 협약식 체결**

신림종합사회복지관과 <저소득주민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협약하였습니다.

05 지원환자 사연

Story 1

박웅규(가명) 남/18

우울증

좋은 사람 바른 사람으로...

웅규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웅규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왼쪽 편마비가 생긴 후,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 다니는 정도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어머니 또한 갑작스런 뇌경색 발병으로 언어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면서, 외동아들인 웅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웅규의 스트레스는 점차 쌓여갔고, 대학진학과 취업 사이 선택의 갈등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웅규를 더욱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벅찼던 웅규는 심한 우울증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과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까지 받았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림후원회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모두 받게 되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웅규는 한림후원회의 도움을 기억하며, 좋은 사람 바른 사람으로 다시 힘차게 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

Story 2

박선희(가명) 여/80

담도암, 당뇨병

숨겨져 있던 희망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았던 선희님... 조카의 사업보증으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체장질환, 담도암, 당뇨까지 진단받게 되면서 선희님의 삶에는 희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래 전 남편과 이혼 후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지인들의 도움과 정부보조금으로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의 기력이 급격히 없어지면서 혈당조절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고통스럽게 보내다 찾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홀로 아픔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희님은 한림후원회를 만나 혈당조절과 담도암 치료를 받고 이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 기적처럼 자녀들과도 연락이 되면서, 선희님은 자신에게 없을 것만 같았던 희망을 다시 보았습니다.

Patient Stories

Story 3

정혜정(가명) 여/22

양막의 조기파열

나의 사랑, 나의 아가를 위해

혜정님은 과거에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이자 말기 신부전 환자인 어머니 아래서 혜정님의 어린 시절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엔 중학교를 자퇴하고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20대가 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자, 아이 아빠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 한통만 남긴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미혼모로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임신 26주차에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출산을 결심하였습니다. 임신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출산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전혀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36주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자 국가의 일부 지원으로는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한림후원회의 도움으로 혜정님과 아이 모두 치료를 받고 건강한 엄마와 아가의 모습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혜정님은 한림후원회의 도움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강한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가를 위해서.

Story 4

김신길(가명) 남/46

간암

Korean Dream... Korean Love.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신길님.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족발집에서 열심히 배달일을 하며 지내던 중 점점 몸이 힘들어지더니 복수가 차올랐고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8월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다 암이 폐까지 전이되어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되었고, 산소 치료를 받아야만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남편 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수입 또한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앞에서 무기력해질 뿐이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봤으나, 아직 국가나 민간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한림후원회와의 만남으로 환자는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길님은 앞으로도 병마와 싸울 힘든 날들이 많이 남았지만, 한림후원회의 도움과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새로이 힘을 내보려 합니다.

06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지원환자 감사편지

Letter 04.

강○○ 엄마 올림 (여/3)

중이염, 양측 중이 수술비 지원

고맙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따뜻함에 눈물이 나와요.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삶 가운데 축복 가득하길 이 시간 기도올립니다.



Letter 01.

이○○ 올림 (여/41)

고위험 임신관리, 입원수술비 지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만 먹고 세상 물정 몰라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병원이라는 곳은 항상 차갑고 냉정하다고만 느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런 온정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한림대성심병원 후원자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모두 건강하시고 덕내 평안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etter 05.

하○○ 엄마 올림 (여/5)

교대성 내사시, 수술전 검사비 지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참 망설였어요. 처음에 좋은 병원에서 수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잘못되면 안 될 텐데 신경도 쓰이고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고맙고 또 감사드려요.
세상에 장애인 이라면 외면하고 눈초리가 좋게 안 보게 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드려요. 좋은 선물 받아서 고맙습니다.

Letter 02.

김○○ 올림 (남/64)

편도암, 항암치료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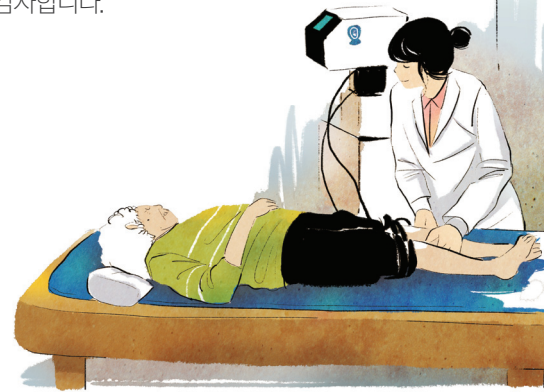
감사의 글 올립니다. 먼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져버린
황당함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정 나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몸이 망가져
있구나. 이것이 살아온 인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갖게
하는 곳이란 걸 알았고, 도움을 받게 되어 저도 앞으로 좋은
곳에 참여하겠다는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올립니다. 몸이 완쾌되면 본인도 작은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되겠고, 열심히 저를 응원하여 주신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etter 03.

강○○ 올림 (여/55)

후두개 양성 신생물, 수술비 지원

저는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사는 강○○입니다. 저에게 수
술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원님
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
어 진다면 저도 남을 위해 봉사하며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림에 모든 분들과 병원에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희망찬 내일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이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Letter 06.

한○○ 부인 올림 (남/52)

뇌경색증, 재활보조기 비용 지원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답례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덕택으로 꼭 완쾌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퇴원하여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은혜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Letter 07.

이○○ 올림 (남/15)

매복 과잉치, 수술전 검사 및 입원치료비 지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치아부정교합인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
니께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치일피일 미루어 오다 겨울방학 때 또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치과에 가보자고 해서 동네 치과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래도 매복치가 있어서 대학병원
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을 해오던 중에 주위 사람의 권유로 한림
대학교성심병원에 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지사
님의 자상한 상담으로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저도 남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
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도움을 주신 분
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7

지역사회기관 감사편지

백의천사의 미소

우리 아이가 아파도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파이팅!

안양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생 일동

어느 날 아침, 등교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학교 가기를 재촉하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니 등교를 재촉하려던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고, 왜 울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는 전날 청소년을 위한 마라톤을 달리고 난 후부터 발바닥이 아파 학교를 갈 수 없다고 소리도 안내고 홀로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발바닥의 7개 바이러스 사마귀로 늘 상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어떻게 치료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무료시술의 치료 재능기부를 바랬지만, 모두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생각 끝에 안양에서 제일 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사회사업팀을 찾아 갔습니다. 흔쾌히 맞아 주시는 예쁜 얼굴의 김은경 팀장님과 문지혜 사회복지사님께 저희 생활관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림후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사마귀가 처음엔 하나였는데 아이가 혼자서 빼내려고 건드렸던 것이 두 개, 세 개... 점점 사마귀가 늘어나 7개가 생기면서 갈수록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더 늘어나기 전에 치료를 해 줘야겠다는 일념이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냉동치료를 1차로 일곱 번을 하였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아 2차로 한 번 하였고 다음 달에 여섯 번 더 치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관은 가정파탄 및 이혼, 결손가정 등으로 집이 없는 소외계층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아이에게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한림후원회에서 사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은 어느 재능 기부보다도 값지고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관에서는 아이가 치료받고 나아진 것을 보면서 백의천사의 참모습과 세상은 참 멋있고 살 맛 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양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장 오 명 희



08

후원자님의 ♥으로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09

한림후원회 「희망나무」 창간 축하 메시지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병원장

우리는 받기도하고 주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받을 때면 기분이 좋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을 통해 관심, 격려, 배려, 사랑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한림후원회〉는 인간존중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열정이 모아진다면 머지않아 지역사회의 큰 등불이 되어 어두운 구석을 골고루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한림후원회의 첫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후원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원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행정부원장

한림후원회는 지역사회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기금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림후원회 첫 번째 소식지 발행을 축하하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박혜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1대 후원회장

한림후원회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림후원회 설립 당시 회장을 맡으면서 함께 고생하고, 걱정하고, 기대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시작은 작지만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훈훈한 나눔이 곳곳에 전파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김종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부장

한림후원회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창간호 마련의 기쁨을 함께 합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카추카~

이봉화

외과 주임교수

한림후원회 잡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한림후원회는 병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고, 안양 시민 독지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중단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후원회 소식지가 계기가 되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호영

혈액종양내과 교수

한림후원회 소식지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소리 없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설렘입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것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 질 것 같습니다. 후원회 소식지도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큰 나눔의 마음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큰 나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태영

내과중환자실 간호팀장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원회 활동과 더불어 따뜻하고 훈훈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무궁한 발전과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후원 만땅! 행복 만땅! 화이팅~

손성민

경리팀 계장

한림후원회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후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임승린

원무팀 주임

한림후원회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환자 옆에서 환자 편에 서서 드러나지 않게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사업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한림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림후원회 파이팅! ^_^*

안양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생 일동

한 -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림 - 님(백의천사, 의사)도 보고, 아픈 곳도
대 - 대신해 주는 천국입니다
학 - 학보다 우아하고
교 - 교만하지 않은
병 - 병원 직원분들께
원 - 원 없이 감사드립니다.



10 후원해 주신 분

2012년 한림후원회

한끼 정기후원

72명 2,810,500원

강희정 42,000	박선형 42,000	이희정 42,000
고아라 42,000	박이수 42,000	임정미 42,000
곽유림 42,000	박형철 42,000	임종윤 7,000
김경미 42,000	백현준 31,500	장만조 31,500
김광중 42,000	백해성 42,000	장인복 42,000
김동규 42,000	서유라 42,000	전덕인 42,000
김동원 42,000	송채영 38,500	정명훈 42,000
김민수 31,500	심경신 42,000	정보라 42,000
김병수 42,000	안광희 42,000	정영아 38,500
김영재 31,500	오세경 42,000	조안나 38,500
김은영 42,000	유경하 42,000	조진선 42,000
김인경 42,000	유진숙 42,000	주민경 42,000
김인수 42,000	유창희 42,000	최민호 42,000
김정우 42,000	이 현 42,000	최소영 28,000
김정은 31,500	이경애 42,000	최현만 31,500
김종란 42,000	이규옥 42,000	태호열 42,000
김주용 38,500	이봉화 42,000	한봉선 42,000
김지선 42,000	이승순 42,000	한승아 42,000
김태하 42,000	이연옥 42,000	한용희 28,000
김혜정 42,000	이영경 42,000	홍선미 35,000
남지훈 42,000	이정임 31,500	홍현주 42,000
남희순 42,000	이준희 42,000	황연주 42,000
문지혜 42,000	이지은 10,500	
박경희 42,000	이창국 42,000	
박범정 42,000	이창수 17,500	

2012년 한 해 동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에
도움을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특별후원

2명, 2개기업 34,663,000원

김미희 2,023,000	오픈북 10,840,000
전찬욱 1,800,000	익명 20,000,000

Hallym news letter
[HOPE TREE]

급여 자투리 후원

73명 1,160,680원

강동훈 5,160	김지선 5,760	신선영 4,410	이경진 4,000	정광익 81,230
김광주 5,610	김한성 5,110	신수정 59,370	이미연 7,870	정은옥 6,470
김기현 12,680	김해경 5,940	안명희 2,030	이미혜 2,150	정진영 5,890
김덕희 63,520	김호영 58,020	안송이 7,590	이상균 7,550	정화선 5,190
김민정 2,410	김효정 18,890	안형미 4,520	이영란 4,920	조영희 5,120
김성빈 4,540	김희진 4,570	양진희 6,040	이원섭 58,850	채수인 5,620
김애경 7,220	문명화 4,940	엄태진 5,020	이은희 6,400	최수중 63,880
김양희1 5,830	박미란 4,400	연향숙 27,160	이지연 60,570	최익준 3,730
김양희2 67,050	박상건 3,400	오영선 1,440	이지현 1,750	최혜인 5,300
김연화 4,150	박선희 6,070	온석훈 71,530	이진희 5,380	하경희 410
김영미 5,100	박지영 2,190	유경호 4,090	이해연 6,430	한혜경 76,160
김율빈 8,620	박혜림 49,200	유인규 6,930	이현경 3,790	황용일 5,790
김은경 41,880	백금선 5,810	윤종희 4,490	이혜경 5,730	황혜정 5,030
김은혜 5,140	송준호 58,470	윤주희 6,370	임수영 7,400	
김재경 5,490	송원희 6,220	이슬 8,360	전원문 5,330	

정기후원

48명 5,528,500원

고성훈 120,000	김정미 27,000	백유진 120,000	이병철 240,000	조혜원 45,000
권영준 140,000	김현화 60,000	송제민 60,000	이용희 60,000	최경옥 12,000
김명희 5,000	김형중 120,000	송홍지 240,000	이재석 60,000	최용남 45,000
김영미 60,000	노태영 360,000	심은정 120,000	이혜진 1,000	최현 12,000
김영웅 50,000	민수기 60,000	유성중 60,000	이효정 600,000	함단옥 12,000
김영희 480,000	박경희 120,000	이관섭 31,500	임승린 60,000	홍성광 240,000
김은정 10,000	박선미 12,000	윤광수 45,000	장승훈 70,000	홍지희 8,000
김이수 120,000	박인원 1,200,000	윤미영 4,000	정기석 120,000	
김인규 120,000	박철규 60,000	이경화 20,000	정수연 12,000	

일시후원

7명 1,598,180원

고성혜 140,000	김형섭 5,240	장봉림 20,110	최경애 13,090	정원선 49,740
고성훈 870,000	박혜림 500,0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신청서

1.개인정보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후원자료 수령	☐ 이메일 ☐ 우편 ☐ 필요 없음		

※개인정보는 후원관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후원자 구분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2.후원정보

☐ 한끼후원	매월 한끼식사 3,500원
☐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 일시후원	후원금액 _____ 원
후원방법	☐ 급여 공제 (교직원에 한함)
	☐ 자동이체 ☐ 5일 ☐ 10일 ☐ 25일
	☐ 직접입금 (입금 예정일 _____)

※본인은 상기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월 정기 후원금을 출금(결제)하는데 동의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변경이 있을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과 같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후원 신청자 성명 _____ (서명)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장 귀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림후원회 회원이 되시려면?

1. 가입방법

한림후원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 후원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회원가입 및 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hallym.hallym.or.kr>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 사회사업팀 → 한림후원회

| 커뮤니티 | Refomax(GW/KMS) → 커뮤니티 → 검색 창에 "한림후원회" 검색 (교직원에 한함)

2.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한림후원회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입원 및 외래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3. 희망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한림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회에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가입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입절차



6. 납입방법

- ① **급여공제** : 교직원의 경우 한림후원회 사무국에서 급여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② **자동이체** : 후원자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③ **직접입금** : 한림후원회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④ **기타후원** : 헌혈증 등 물품후원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번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지하1층 사회사업팀내 한림후원회사무국
Tel : 031-380-6078 Fax : 031-380-4082 E-mail : hopenetree@hallym.or.kr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745651 (예금주 : 한림후원회)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